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6 하반기 '천국시민' 장학생 선발

교회내 43명, 농어촌목회자 자녀 48명... 찬양예배 시 수여식

장학위원회(위원장 김대호 장로)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 '96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진다.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위원회에서는 교구담당 교역자 혹은 교회학교 지도 목사 및 부장 장로의 추천을 통해 장학금 신청서와 성적표를 제출한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였다.

또한 100교회운동을 시작한 작년부터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교회 내 장학생 43명과 농어촌 목회자 자녀 4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9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선발된 장학생 명단은 우측과 같다.

* 교내 장학생 *

대학생

권재현 허 철 이원준 최 읍
유사라 홍진선 진부민 김주연
이주은 김 진 박윤정 송인선
손영희 이맹영 (14명)

고등학생

황준호 장은규 소원섭 신천규
이승현 김성훈 주미영 김혜숙
유혜진 정희진 광정임 안상미
오정주 박효인 강유진 유명진
서현아 고은혜 (18명)

중학생

김종화 임만용 전영훈 임만식
김윤호 김윤정 김재연 박은혜
김은정(A) 김은정(B) 김수정 (11명)

* 농어촌교회 목회자자녀 *

대학생

김은성 김 면 백종석 백종학
김유진 구은진 서영제 서은진
송명종 송은아 심에스터 엄지영
오도원 오은선 유요섭 윤동한
이나비 이성결 이종순 배재은
전준봉 (21명)

고등학생

김 관 김강석 심요한 오소영
이경신 안애림 이신자 박영선
정효경 정소영 정지영 최 용
최다윗 최 현 (14명)

중학생

김 류 김한나 남기명 박현우
심어진 엄영섭 오신영 유안나
이사라 안인국 이재천 장은화
최성수 (13명)

59명의 농촌전도단 나흘간의 전도활동 마쳐



8월 11일, 온 교우의 기도의 성원에 힘입고 파송받은 59명의 전도단원들은 12일부터 15일까지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울정리에서 전도활동을 폈다(관련기사 4면).

전도단은 축호전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의료봉사, 지역봉사 등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집회를 개최하였다(사진은 전도집회의 한장면).

◇ 96 농촌전도 참가자 명단 = 이순환 원 호 박종상 김태기

윤봉준 이영기 김계순 김선미 김용숙 윤문자 이남복 이민화 이점숙 전인화 전춘자 차복녀 최무순 최영순 허인숙 홍재식 권영복 왕경래 홍성주 김선희 김승기 정동호 최용걸 최형열 황재목 강풍자 권윤경 김영연 여현진 오영숙 이영숙 이옥녀 이인숙 이자혁 임송자 전용순 정정숙 조대영 김석주 박상훈 채수호 최 읍 김민정 나소연 노대희 노애리 박윤정 소은희 이은유 홍지민 홍진선 황지영 민만식 김수영 이순녀 (59명)

21일(수) 학습·세례식

21일(수) I, II부 예배 시에 8월 학습·세례식을 거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9일(월) 오후 7시에 3층 찬양대실에서, 문답은 20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갖는다.

제 81회 총회 총대모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81회 총회가 9월 12일에 개최된다. 이 총회에 파송될 강남노회 총대 모임이 8월 22일(목)에 있다. 우리교회에서는 이중윤 목사를 비롯하여 이용선·박철훈 장로가 참석하게 된다.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9월 2일(월) 오후 2시 서울강남YMCA대강당에서 개강한다.

“복음과 문화: 한국교회가 풀어야할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학기에는 이중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와 박동현 박사(장신대), 차경수 박사(서울대), 김정욱 박사(서울대), S. T. 로간 박사(웨스터민스터 신학대), 서상목 박사(국회의원), 김중기 박사(연세대), 신국원 박사(총신대), 김지철 박사(장신대), H. 알렌 박사(보스톤대), 최재덕 박사(서울여대) 등 국내외 석학들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수강신청서 접수는 9월 2일까지이며 본원 소정양식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 517-7651 ~ 5).

창세기
강해



형제를 위한 호소

(창세기 44장 18 ~ 34절)

이종운 목사

이 세상에는 감동적인 연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에서 행한 이 연설처럼 설득력 있고 힘이 있는 연설도 드물 것입니다. 유다의 호소야말로 가장 남성답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진지함 때문에 이 연설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1.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호소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유다는 22년 전, 요셉을 팔자고 다른 형제들에게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대조입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하는 유다의 호소는 필사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쥐가 고양이와 경기하듯이 승산이 없는 노력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감옥에 대신 가겠다고 합니다. 기대할 수 없는 관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요셉의 청지기가 자기들을 불신하고 수색할 때만 해도 의기당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호소는 다섯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의 바르게 요셉의 권위를 바로의 권위와 같이 인정하면서 자신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아버가 심히 슬퍼하며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보낸 일과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종이 될 것이니 동생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2.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탄원

타인, 특히 형제를 위한 아름다운 호소로는 모세의 자기 백성을 위한 탄원이 있습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불과 연기 속에서 40일간 었디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외쳐댔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소를 생각한 것입니다. 아론은 결국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예배하고 자기들의 신이라 외쳤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다른 한 쪽에서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왔을 때 그들은 모세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의분에 차서 아론을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출애굽한 자들 중 3000명이 배신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를 범한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성들은 얼마동안 바르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산 위에서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죄값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32:32).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마치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고 싶어하듯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나님께 탄원하였던 것입니다.

3. 바울의 기도

바울의 자기 희생정신은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국수주의자처럼 보일 정도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걱정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눅21:20-24).

이같은 예언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 백성을 걱정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9:1-3).

마치 모세처럼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자기

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호소를 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유다, 모세, 바울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생한 인물들이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모세, 바울은 자기 희생을 원했으나 실제로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씻으시고 속죄하시려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도 이제는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킬림 ✧

“미스바 회개운동”

당장 무엇이든 폭발할 것만 같은 위기가 팽배해 가고 있다. 몸살 기운인 줄 알았는데 사회가 중병에 걸려 회생이 어려울 만큼 악화일로로 빠져가는 느낌이다. 누구가 말을 해도 들어 주려는 이가 없고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자기요구만을 정당화하고 나서는 이 세대의 의식구조를 어디서부터 치유해야될지 심히 안타깝기만 하다.

대답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에벤에셀에 모여 항오를 벌리던 이스라엘 장정 4천명이 블레셋에게 단번에 진멸을 당하고 후시나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옮겨오면 승리할 수 있을까하여 실로에서 법궤를 옮겨왔으나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전사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일로 연속된 재앙을 만나자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지도하에 모든 우상과 악행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는 미스바 회개운동으로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다.

우리 민족의 살길은 너도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짓없는 회개를 하는 것뿐이다.

“광복절 ... 다시 생각해 보는 한국교회의 역할”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별사를 남겼다. 역사를 알아야 하고 민족마다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다(신명기 32장).

최근 학원가가 통일문제로 어지럽다. 그렇게 갖가지 구호들이 난무하는 것은 역사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철거중인 중앙청 건물을 생각해 보자. 이 건물이 조선총독부로 사용된 것은 16년뿐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민주적인 헌법이 공포된 곳, 6.25때 서울을 수복하고 태극기를 꽂은 곳이 그곳이다. 미운 것 하나때문에 역사를 다 없앨 수는 없다. 역사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 쓰라린 것도 역사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의 근대정치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중앙청 건물을 없애고 있다. 개선문뿐만 아니라 쓰라린 실패와 고통의 것도 남겨야 한다. 시대의 아픔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민족만이 역사를 남기는 민족이다.

찬송가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찬송가가 처음 나온 때가 1895년이 다. 누가 언제 불려도 눈물이 나는 144장이 바

지상중계

“광복이 주는 오늘의 의미”

이글은 민경배 교수가 한기총 주최로 8월 11일 서울교회당에서 한 광복절 기념강연을 요약한 것이다.

로 이때 나왔다. 1905년 나라를 뺏긴 때 9개의 찬송가가 나왔다. “하늘가는 맑은길...”도 이때 나왔다. 나라가 깨졌을 때 희망을 주는 대서사시가 바로 이 찬송이다. 1919년 3.1운동 때에는 찬송가 “삼천리만도 금수강산...”이 나왔다. 1943년은 신사참배문제로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있었던 때다. 이때 “어서 돌아오오” 찬송이 나왔다.

그러나 해방이후 6.25때까지 우리 찬송가는 나오지 않았다. 한국교회가 나라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울며 간구하다가 나라를 얻고나니 의식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6. 25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찬송이 나왔다. 6. 25전쟁 중 한국교회가 이른바 빨갱이시

비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1952년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는 찬송이 나왔다.

기쁘든 슬프든 역사의 흔적을 가진 민족만이 역사를 끌어간다.

해방을 몇달 앞두고 일본 총독이 민족주의자인 지도자 몇사람을 불러 일본은 곧 망하니 정권을 이양하는 대신 해방 후 일본군인과 사람들을 무사히 일본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비밀협상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들 민족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본은 망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희망이 없었다.

그러나 해방직전 세상을 뜬 두 사람은 달랐다. 윤동주는 새벽이 밝아올 줄 알고 나팔을 부는 시를 썼다. 김교신은 조선지도를 보고 2시간 동안 기도한 후 유명한 글을 썼다. “우리나라의 지도모습은 아시아대륙을 메고 허리를 펴는 형상이다”라고.

이같이 한국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민족마다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광복절 공동기도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옵소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스리시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약육강식의 험한 세상에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셨음을 찬양하나이다.

남북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평화통일의 한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날로 깊어만지는 불신의 골을 매우지 못하였나이다.

냉전의 이데올로기는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는 냉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자 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개발조차 막아내지 못하고 있나이다.

1995년 평화통일 회년의 해가 일년이나 지난 지금도 불신과 증오의 벽을 허물어 내지 못하였고 민족화해를 통한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하였나이다

이시간 우리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랑과 화해와 일치를 위한 헌신이 부족하였음을 회개하나이다.

주여, 이시간, 우리를 치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데올로기와 냉전의 논리를 과감히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옵소서.

대결과 불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7천만 겨레가 하나로 뭉쳐 분열의 담을 허물어 나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과 소명감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시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평화가 넘쳐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평화를 일구는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소서.

이 해방절의 날에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남북 / 북남의 그리스도인들과 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는 평화와 통일을 주시옵고 이 세계에는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광복절 성명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8·15광복 51주년을 맞이하여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일제 36년간의 잔인하고 악랄했던 만행과 민족수난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광복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과거사를 반성하지 못한 일본은 진실로 사과하고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여 진실한 우방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한국교회는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깊이 회개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우리는 지금도 제국패권주의의 야심을 버리지 못한 채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가 그들의 영토인양 계속적인 망언과 최근에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에 저해되는 일본 관방장관의 망언을 우리는 규탄하며 이에 일본정부는 즉시 진실한 회개와 이성을 찾아 참 우방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와 같은 망언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2.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서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찾도록 하고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극 도와주는 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3. 저속한 외래문화와 대중매체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전달되어 그들의 정서와 성도덕에 범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심히 우려하며 규제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지기를 바라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순결서약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를 촉구한다.
4. 우리는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에 싸우고 있는 이때 온 국민은 겸허한 자세로 근검절약하며 해외관광에서의 추태로 타락하는 등 도덕성을 회복하는 운동이 적극 추진되어지며 최근의 치안문제와 사회적 부조리, 심각한 환경문제 등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에 한국교회는 정직·절제·사랑 실천운동을 계속 전개하여 민족의식이 개혁과 교회갱신에 앞장서야 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한국선교 2세기를 맞아 먼저 교회가 하나되어 한국교회 부흥이 둔화해 가는 데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계속되는 분열과 세속화, 난무하는 이단·사이비들을 파악하여 강렬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6. 8. 11. 광복절 기념예배 참석자 일동

전도활동의 본부가 된 울정교회는 1988년도에 설립되었는데 1993년도에 누전으로 인해 교회당과 사택이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후 새로 건축을 시작하여 오는 9월 17일에는 헌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 집을 채우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울정교회 새 예배당이 성도들로 가득 차는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전도활동을 시작했다.

권영복 집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펼친 여름성경학교. 이야기와 비디오로 엮어간 말씀공부, 체육대회, 인형극, 율동과 게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낮시간동안 교회학교 학생들의 눈동자는 빛나기만 하였고, 울정교회 미래의 주역인 중·고등부 학생들과 성경학교를 담당한 대학생 선생님들과의 교제는 밤이 맞도록 계속되었다.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울정교회의 꿈나무들이 마련한 조촐한 잔치로 뜻뜻한 정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은 벅찬 감사로 가득 찼다.

전인화 권사님을 중심으로 '주의손 선교회'와 더불어 펼친 의료봉사. 정동호 집사님이 준비한 약품들은 지역 주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별히 교통사고로 지팡이에 의존하던 할머니가 첫째날 치료를 받고 둘째날에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걷고 뛰면서 기뻐하였다. 저녁집회 때에는 스스로 교회당에 찾아나오며 전도에 앞장서기도 하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전도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김태기 장로님이 선두가 되어 마을노인회관 안팎에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했던 지역

농촌전도단 활동보고서

불을 때주시는 하나님



이 복음 증거하리! 패를 얻든지 못 얻든지...



봉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인회관이 새롭게 단장되는 것을 보며 너무도 좋아하시면서 징과 북, 팽과라까지 동원하여 한바탕 즐거움을 표했다. 젊다 못해 어리기까지한 전도단원들까지도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는지 주민들뿐 아니라 전도단원들도 서로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다.

정무균 집사님이 보내주신 왕만두와 이관규 집사님이 제공하신 고기로 동네 잔치를 벌일 때엔 초대받은 주민들 모두의 마음이 열려 다른 이웃들까지 데려오면서 복음의 잔치에 동참케 하였다. "하나님께서 불을 때주시니 따뜻한 온돌이 되었다" 라고 하며 뜨거운 날씨까지도 감사할만큼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저녁마다 계속되었다. 김선미 권사님을 비롯한 쿼사분과의 노련한 솜씨로 차려진 사랑의 식탁을 대할 때마다 전도단원들은 새

힘을 얻고, 힘을 얻은대로 각 분과에서 일할 수 있었다.

이영기 장로님과 윤봉준 장로님을 중심으로 강행군한 축호전도. 완고한 주민들, 농촌의 바쁜 일손과 빈집들... 전도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같아 보였으나 한번에 안되면 두세번을, 한팀이 실패하면 또다른 팀이, 이 모양이 안되면 저 모양으로 전하고 또 전했다. 박두호 집사님이 전도용으로 특수 제작하여 기증한 부채를 받아들면서 즐거워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전도단원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했다. 울정교회 교인들이 합류한 전도는 폭염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집회 전까지 계속되었다. 평소에는 말이 어눌해 보이던 권사님들도 얼마나 능력있게 전도를 하던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였다.

권윤경 집사님이 이끄는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민들은 열린 마음으로 전도집회에 참가하여 말씀을 받았다.

첫날 저녁부흥회에는 80여 명이 모이더니 둘째날에는 110명, 수요일 저녁에는 128명이 모였다. 본당은 물론 바깥 계단까지 차고 넘쳤다.

전도단 활동을 통해 농촌교회의 실상을 보고, 그들과 마주할 수 있었음이 감사하다. 불을 때주시는 하나님, 한여름의 더위만큼이나 뜨거웠던 성령의 불로 하면 할수록 뜨거워지는 복음증거의 사명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울정리에 뿌린 씨앗이 울정교회의 큰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조용히 기도해 본다.

<최형열 집사>

■ 목회자·교우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9일부터 경주 교육문화원에서 열리는 전국 남선교회연합회 제 55회 총회에서 주제강연. 20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1세기 정책개발위원회에 참여.

* 박기현·오부희 성도(7교구, 용산다락방)는 6일 득녀.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들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 학생들이 온전한 천국시민으로 자라나도록
2.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
3. 전도단의 활동이 결실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